

**chosun.com** "백인 남성 3명과 싸워 이겼습  
EXCLUSIVE"니다. 여성, 아시아계, 유학생

**관련 핫이슈**

이라는 3가지 핸디캡이 있었지만, 피하기보다는 도전해서 극복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살맛나는세상

**관련 검색어**

- 정우진

17일(미국 현지시각) 열린 미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행정대학원) 학생회장단 출범식에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유학생 최유강씨와 함께 학술포아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한국 유학생 정우진(30)씨가 눈에 띄었다. 아시아계 여학생이 부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게 학교측의 설명. 특히 정씨가 1년간 맡게 되는 학술포아 부학생회장 자리는 케네디스쿨의 학사일정이나 과목, 교수선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정씨는 학술, 학생복지 등 각 분야 부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에 출마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백인남학생 후보를 100표차로 꺾었다.



▲ 아시아계 유학생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술포아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정우진씨가 17일(미국 현지시각) 학생회장 출범식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각 부학생회장들마다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모두 총학생회 산하지만, 학술포아 위원회만 유일하게 케네디스쿨 차원의 공식기구”라고 했다. 케네디스쿨 학장과 함께 학술포아 공동위원장을 맡아, 어떤 교수를 선발할 지,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을 신설할 지 등 중요한 학사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20명 정도 되는 학술포아 위원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출마동기를 묻자, 그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데다, 이방인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동안 주눅이 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본토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에서 한 번 이겨보면, 그동안의 고민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방인 콤플렉스’를 도전으로 이겨내보자고 결심했고, 남학생들 통바구니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선거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표현이었다. 그는 “외국 학생들, 특히 미국학생들은 늘 토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탓에 스스로를 선전하는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넘쳐보였다”며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적 문화가 국제화시대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학생들에게 현실감있는 공약으로 파고들었다. 유명교수들에게 수강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을 감안해 강의시간을 늘리겠다, 교수명가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 케네디스쿨만이 내놓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바라던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대로 제시한 것이 큰 점수를 뒀다.

정씨의 꿈은 국제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청소년복지재단(사단법인 장애복지)에서 청소년사업부 실장으로 활동했다. 2002년 워싱턴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따면서 확실히 이쪽으로 진로를 굳혔다. 케네디스쿨을 지원한 것도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길러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유니세프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인도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빈곤차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적절한 분배방법을 찾아내 지구상에서 빈곤을 없애는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